

공동체 소식

부활 제 4주일

기쁨과 평화의 샘이신 하느님, 사람의 앞날을 성자의 권능에 맡기셨으니,
성령의 힘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언제나 착한 목자를 따라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4월 기도지향

- 감영진(라파엘), 한춘희(라파엘라) 가정
-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가정

사제관 및 공동체 공간 축복식

- 일시 : 4/28(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8903.8901 Haskins St. Lenexa
☞ 조출한 다과가 마련되오니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보고는 우선적으로 캔사스 대교구에 서면 보고한 후,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셀 기도 모임

저희 공동체 신심 단체로 '셀 기도'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셀(Cell) 기도는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님의 "기도하라, 희생하라,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라"는 요청에 응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 세포들의 소그룹 기도 모임입니다(셀기도서 33쪽 인용).

☞ 임시로 화요일 저녁(미사 후) 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로렌스 야외미사

- 일시 : 4/27(토) 오후 4시
- 장소 : Dad Perry Park(North)

본당 야외 미사

- 일시 : 5/5(일) 11시
- 장소 : Shawnee Mission Park, Shelter #10
☞ 본당 공동체가 모처럼 야외에 모여 주일미사를 봉헌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합니다. 형제자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 이번 주일(4/21) 중심미사 후, 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 사제관 보수 및 유틸리티 설치,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평협 임원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한 '창세기 그룹 공부'가 종강(4/25)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캔사스 대교구 대주교님의 사목방문이 11/24(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목방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며 마음을 모읍시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55	218	344/164	13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문석찬(요 셉)
	이원준(요 한)	문호진(안토니오)
차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차호섭(요 셉)
	안지영(카타리나)	차서은(세라피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수연(율리안나)	양경직(돈보스코) 양정희(모 니 카)
차주	최은미(아 네 스)	김정옥(수 산 나) 김세라

애찬 봉사자

금주	신혜경(마리아), 정선식(베로니카) 서정애(안젤라), 김재은(수산나)
차주	김시연(엘리사벳), 조경희(요안나) 한정숙(마리아), 김말자(세실리아)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차주	백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4/7	102명	436불	2,940불
4/14	115명	471불	1,280불

☞ 이사를 위해 도네이션 해 주신 김상철(미카엘), 문석찬(요셉)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 제 4주일 성소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3년 4월 21일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8: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착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불리는 '성소주일'입니다. 양은 목자가 부르는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제성소의 증진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합니다.

성화해설

착한목자 그리스도
(플리오, 1660, Oil on canvas,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 박물관 소장)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요한 10.27-28.30) 양들이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은 양들은 언제나 목자 곁에 모이고,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으며, 목자를 따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사도 13,14.43-52 < 이제 우리는 다른 민족들에게 돌아섭니다. >



우 리 는 당 신 의 것 주 님 백 성 이 어 라. 기 르 시 는 그 양 때 이 어 라.

- 온 누리 반기어 주님께 소리쳐라. 기쁨으로 주님 섬겨 드려라
춤추며 당신 앞에 나아가거라. ◎
- 주님께서서는 하느님 너희는 알아라.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것
주님 백성이어라 기르시는 그 양 때 이어라. ◎
- 주님께서서는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당신의 진실하심 세세에 미치리라. ◎

제 2 독서 : 묵시 7,9.14-17 < 어린양이 목자처럼 그들을 돌보시고, 생명의 샘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 요한 10.27-30 <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

세 마

목자의 삶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발생하면서 초기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목자(牧者)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자는 하느님이었습니다. 구약성서의 시편 23장을 노래한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고 당신을 따르는 신앙인들을 인도하는 목자라는 말입니다.

생명체는 태어나면서부터, 살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체유지 본능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동물이 먹이를 찾아 가는 현상이 모두 개체유지본능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물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우리러보는 존재가 되어 살고 싶어합니다. 그런 현상은 모두 개체유지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본능적 욕구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욕구는 인간이 사회 안에서 떳떳이 또 활발하게 사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 욕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욕구를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고, 칭찬도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구성원 모두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보호합니다.

신앙인은 인간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사회 질서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에게에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느님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신앙인은 그 나라의 질서를 살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빕니다.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살아서 그분의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생명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목자라 불렀습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된 질서, 곧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개체유지 본능은 이기적 욕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웃을 외면하고 하느님과 교섭하여 자기 한 사람만 잘 살고, 자기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교가 권장하던 것이 각자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한 사람 잘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이웃을 돌보고 가없이 여겨야 한다는 이스라엘 초기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하느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체유지를 자기의 최대 목표로 삼으면, 우리는 이해 타산하고 전전공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어 주고, 이웃을 섬기면서 환희(歡喜)에 젖는 체험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애써 가꾼 우리의 개체(個體)가 지상 생존을 끝내면서 우리도 사라질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대중가요의 한 마디가 우리 인생의 그런 허무를 대변합니다. 이웃과 경쟁하고, 미움에 젖고, 분노에 시달리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내어주고 쏟는’ 하느님의 생명이 지닌 질서에 충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말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또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질서 안에 살기에, 하느님과 더불어 지속되는 세계에 삽니다. 예수님이 사셨고, 또한 부활하여 사시는 세계입니다.

오늘은 성소(聖召) 주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관심을 기울이자고 제정한 날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는 예수님이 열어 놓으신, 대가 없이 ‘내어주고 쏟는’ 삶, 곧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존경쟁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살겠다고 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 중심의 넓은 세계에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펼쳐 보여주신 하느님 중심의 세계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웃과 함께 나가겠다고 마음먹고 택하는 길입니다.

마중물

편견

푸에르토리코의 국립미술관 입구에는 “노인과 여인”이라는 그림이 걸려있습니다. 이 그림은 검은 수의를 입은 노인이 젊은 여자의 젖을 빠는 그림입니다. 관람객들은 노인과 젊은 여자의 불륜을 그린 이 작품에 불쾌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런 싸구려 그림이 어떻게 국립미술관의 벽면을 장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미술관의 입구에.’ 그리고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도덕을 통렬히 꾸짖습니다. ‘작가는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불륜의 현장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 정말 삼류 포르노인가?’

그러나 사실은 검은 수의를 입은 노인은 젊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입니다. 이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투사였습니다. 독재정권은 노인을 체포해 감옥에 넣고 서서히 죽게 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음식물 투입 금지.’ 노인은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갔습니다. 딸은 해산한 지 며칠 지나서 무거운 몸으로 감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빼만 앙상하게 남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아버지 앞에서 딸은 젖가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젖을 아버지 입에 물렸습니다.

‘노인과 여인’은 부녀간의 사랑과 헌신과 애국심이 담긴 숭고한 작품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그림을 놓고 사람들은 ‘포르노’라고 비하도 하고 ‘성화’라고 격찬도 합니다. ‘노인과 여인’에 갖든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난을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에 담긴 본질은 알고 나면 눈물을 글썽이며 명화를 감상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본질을 파악하지도 않고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우를 범합니다. 본질을 알면 시각이 달라집니다. 교만과 아집 그리고 편견을 버려야만 세상이 보입니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2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30.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계시하신, 감히 부를 수조차 없는 하느님 이름인 YHWH(야훼)는 그리스 말 역 구약 성경에서는 Kyrios(주님)로 번역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라는 칭호는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지니신 신성까지도 가리키는 가장 자주 쓰이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성부를 지칭할 때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의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446항).

또한 ‘주님’이라는 이름은 하느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

